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초등학교에 만화로 읽는
'바른 식생활 가이드북' 8만부 보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에도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바른 식생활 가이드' 8만부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바른 식생활 가이드'는 2011년부터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배포됐던 '가정 식생활수첩'*을 초등학교 3~4학년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만화와 활동지 형태로 새얼굴로 단장되었다.

* 매년 전국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정보지, 알람장 등의 형태로 배포

2015년 '바른 식생활 가이드' 주요내용은 '바른 밥상, 밝은 100세'의 5가지 실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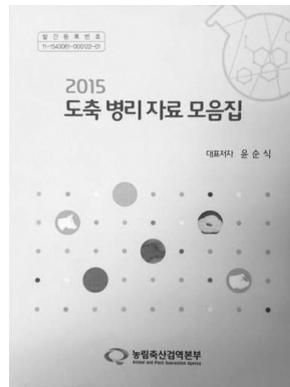
△아침밥먹기 및 가족밥상의 날, △텃밭가꾸기, △채소과일먹기,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축산물 저지방부위 소비촉진** 등에 관한 내용들이 재미있고 쉽게 이해되도록 만화로 기술되어 있다.

올해 2월 초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신청 학교비율이 80% 이상으로 반응이 매우 높고, 어린이집·유치원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안용덕 과장은 "앞으로 학교 수업 적용이 쉽도록 교사용 부교재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벤트도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홈페이지(www.k-food.or.kr)에서도 교재들을 전자책으로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2015 도축병리 자료 모음집' 발간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는 지난 3월 18일 도축장에서 근무하는 검사관들이 도축검사 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도축병리 자료 모음집'을 발간·배포한다고 밝

혔다.

도축검사 단계 중 도축병리 검사는 사람이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식육을 찾아내어 폐기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검사방법에 대한 조사연구가 많지 않았고 현재 활용하고 있는 자료는 1997년 제작된 책자로, 현장 검사관들은 최근의 자료가 담긴 책자 발간을 꾸준히 요구하여 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연구과제(국내 도축가축에 대한 병리학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축병리 자료 모음집'을 발간하게 되었다.

본 책자에서는 국내 도축장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소와 돼지의 장기별 병변 총 76개를 선정하여 임상증상, 육안소견, 조직소견, 원인검사, 발병기전, 중요성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특히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육안사진을 실어 현장 근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간한 '도축병리 자료 모음집'은 전국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관련기관에 3월중 배포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이석 본부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현장에서 활용할만한 도축병리 책자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고 말하며, "연구사업의 결과물인 이 책자가 검사관이나 검사원이 현장에서 도축검사를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의견 직접 수렴하는
양방향 소통채널 '국민소통단'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의약 안전 이슈에 대하여 국민 입장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제도개선 등 의견을 개진하여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소통단'을 구성하여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소통단은 식의약품 안전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 일반 소비자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0개 회원단체의 지역 대표자 등 1,000명으로 구성되었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한국소비자연맹 등 10개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로 전국 690여 개 지부 230만여 명 회원이 참여

주요 역할은 국민 입장에서 식의약품 유통 현장이나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 이슈에 대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을 하게 된다.

국민소통단이 제시한 의견은 문제점 해결, 제도개선 등 정책에 반영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이슈에 대해서는 생활밀착형 정보를 일반 소비자에게 적극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민소통단을 통해 마련된 주요 생활밀착형 정보는 소비자 식·의약안전교실 등을 통해 교육용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 식·의약안전교실 : 전 국민대상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의로기기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상시 교육

식약처는 국민소통단을 통해 국민의견을 밀착 경청하여 상시 공유하고 소통메시지 등 필요정보는 신속히 제공하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고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채널을 다양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서비스 오픈

농업기술 콘텐츠 통합 연계로 농업기술정보 One-Stop 서비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업인이 원하는 농업기술정보를 한 곳에서 일괄 서비스하는 정부 3.0 핵심과제인 농업기술포털 서비스(이하 '농사로' <http://www.nongsaro.go.kr>)을 구축해 3월 18일부터 오픈했다.

『농사로』는 지금까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4개 소속기관별로 별도 운영해 오던 14개 농업정보를 통합하고 검색 기능을 강화하여

새롭게 구축한 것이다.

본 시스템은 기존의 14개 농업정보를 농업기술, 농기계·농자재, 농업안전과 건강, 농식품과 생활농업, 참여공간 5개 기술 유형으로 분류하여 5백여만 건의 농업기술정보를 연계·통합 서비스하고 있으며, 농업인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농사로』 검색포털을 구축함으로써 그동안 여러 기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정보를 찾는 불편함을 개선하고 작목과 품종 등 사용자의 관심에 맞는 사용자 맞춤형 농업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최신 농업기술정보를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정보별 수시 및 정기적 갱신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최신 정보 현행화와 가치 있는 농업정보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게 하였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농사로』를 영농현장의 영농 애로기술해결과 농업기술 119와 같은 브랜드화로 발전시켜 국민의 농업정보 서비스 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 주 : 오리관련 기술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농사로 홈페이지 방문을 적극 권해드립니다.)

3월 이전에 앞서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의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완주 금평리, 전주 상림동 등 전북혁신도시 주민을 비롯해 전주시와 완주군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립축산과학원의 주요 업무와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바이오가스연구동과 가축대사연구동, 동물병원, 축산식품연구동 등 청사 내 주요 시설 14곳도 직접 둘러봤다. 설명회 뒤에는 기관장, 직원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며 훈훈한 시간을 보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홍성구 원장은 “3월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에 앞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축산연구기관인 국립축산과학원의 업무를 소개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상생, 화합할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 유일의 축산 분야 국립 연구기관으로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 16일부터 전북혁신도시 농업생명연구단지로 이전을 시작했다.

국립축산과학원

3월 전북혁신도시 이사 앞두고
주변 마을 주민 초청 설명회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 국립축산과학원은 2월 26일 전북혁신도시 내 이전 청사에서 주변 마을 주민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중국·할랄시장 개척으로
농식품 수출길 넓힌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는 3월 13일 열린 2015년도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업무 보고 중 금년도 핵심과제로 한중 FTA, 한-UAE 할랄식품 MOU 체결을 우리 농식품 수출의 키포인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추진 전략에 대해 보고하였다.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전담조직 신설, 칭다오 수출전진기지 등 물류 인프라 확충과 권역별·시장별 특성에 맞춰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고,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해 현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1조 달러를 상회하는 이슬람 식품시장 개척을 위해 금년 4월 UAE에 수출거점(해외지사)을 마련하고, 할랄시장에 대한 심층정보조사 제공, 할랄 인증을 위한 교육, 컨설팅 강화 및 자금지원, GCC 상공회의소와 연계한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레일, 한국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우리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6차 산업화와 ICT 기반의 유통구조 개선, 수급조절위원회 활성화, 비축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안정적 수급관리를 위해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재수 사장은 지난 해 공공기관 경영정상화를 계기로 끊임없는 경영혁신과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농정의 핵심 과제에 대한 성과 창출을 통해 농어업·농식품산업 발전에 주역이 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

가축질병 다발지역에 가축방역 및 백신 관리실태 점검 실시

농협중앙회 축산건설팀부(부장 안병우)는 2015년 3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우리나라 소규모 축산농가의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450개 공동방제단의 운영 실태를 일제 점검했다. 동시에 전국 86개 축협동물병원을 통해 공급 관리되는 구제역 백신의 관리실태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특히 구제역·AI 발생지역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공동방제단은 국내 소, 돼지, 닭, 오리 등 약 8만2천여 소규모 영세농가의 취약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농협에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중점 점검내용은 방역요원 확보 여부, 대상농가 소독 실적 및 소독약 취급 적정성, 전산관리, 방역차량의 관리 등이다.

한편, 축산건설팀부는 국내 전업농 규모 농가에게 지역축협 동물병원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 공급 및 관리실태도 금번 동시에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백신보관 장비의 확보 여부, 백신 온도관리, 재고량 관리, 전업농 농가 공급실적 등이다.

농협중앙회 이기수 축산경제 대표이사는 “공동방제단은 지난해 전국 9만 7천호의 영세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125만 6천회 소독활동을 실시하였고, 전업농 대상으로 2천 2백만두분(소 4백만두, 돼지 1천8백만두)의 구제역 백신을 공급하였으며, 금년에도 가축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국민과의 소통강화 ... 전문기관 벽 낮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일상화 된 축산전문 용어 사용으로 인한 대외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 이하 '축평원')은 3월 13일 경기 군포 축산물품질평가원 본원 대회의실에서 국립국어원의 협조로 '공공언어 바로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바른 국어사용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지난 3월 3일부터 시행중인 국어책임관 제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어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에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해 기관의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축산 전문기관인 축평원은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필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국어책임관 제도를 도입·실시하고 있다.

축평원은 돼지고기이력제 시행과 축산물유통실태조사 등으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도 새롭게 시행중인 국어책임관 제도를 중심으로 국민과 소통의 거리를 좁히고자 더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축평원 관계자는 "이러한 노력을 토대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전문용어를 바로잡고 일반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국민과 소통하며 기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부3.0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